

6축 전략

#3. 미래 한국군 군구조 발전방향

순 서

- I. 연구 개요
- II.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과 군구조
- III. 현상분석과 군구조 발전방향
- IV. 향후 추진 방향
- V. 결 언

■ 연구 목표 및 중점

- 목표 : 미래 한국군 군구조 발전방향을 제시
- 중점
 -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과 군구조의 의미와 유형을 간략히 살펴봄
 - 현재 한국군 군구조의 현상분석과 미래 군구조 발전방향을 함께 제시
 -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 강구
 - 향후 발전가능한 정책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국방 정책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함

미래 한반도 안보환경과 군구조

■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

- (세계정세) 미국이 국제질서의 주도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등 주변국들은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선택적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고 있음
- (동북아정세) 역내 국가간 경제·문화적 교류 증대로 인한 상호 의존성은 증대되고 있으나, 세계 최대의 군사력이 집중되어 군비경쟁 등으로 인한 긴장구도는 심화 예상
- (한반도 안보환경) 불확정성의 심화
 - 미래의 한국군은 특수전 위주의 재태전을 수행하려는 열세국가의 위협과 우등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고비용의 첨단전을 강요하는 우세국가의 위협에 동시에 직면
 - 미래에는 전장영역의 확대로 기존영역에서 더 나아가 우주 및 사이버 영역을 포함하는 비물리적 혹은 가상영역까지 확대될 점임
- ‘지상·해상·공중’ ⇒ ‘지상·해상·공중 + 우주·사이버’영역에 대한 위협 대응 필요
 -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과 경제·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적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
 - 이를 토대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‘군구조 발전방향’ 모색 필요

■ 군구조란 무엇인가?

- (군구조의 개념) 국방 및 군사임무 수행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의 조직 및 구성관계로서 육군·해군·공군이 상호 관련되는 체계
- (군구조의 구성)
 - [지휘구조] 국방부로부터 국방부 직할부대, 합동부대, 각군 예하부대에 이르기까지 지휘관계로 이루어진 체계로 지휘구조는 상부지휘구조와 하부지휘구조로 구분
 - － 상부지휘구조 : 정책을 결정하고 전략 수립 및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합참 및 각 군본부 간의 지휘관계를 설정한 체계
 - － 하부지휘구조 : 군사전략 수립, 합동·연합작전 수행 등을 담당하는 합참, 각 군본부 이하 제대 간의 지휘관계를 설정한 체계
 - [부대구조] 전투력 발휘가 용이하도록 지휘·통제부대, 전투부대,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부대, 교육훈련부대로 구분하여 단위제대별로 운용개념에 맞게 부대를 편성하고 지휘관계 등을 설정한 체계
 - [전력구조] 군사목표를 달성하고 군사전략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, 가용한 인력과 예산을 고려하여 제대별 적정수준의 무기체계, 장비 등을 편성한 체계
 - [병력구조] 군조직을 형성하는 병종별 또는 신분별 인력의 구성 체계

○ (군구조 개선의 의미)

- 국방부, 합참, 육군·해군·공군본부 등 군 상부 조직은 문민기반 위에서 통합전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개선·발전시켜야 함
- 국방부장관은 합참의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합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보강·발전시켜야 함
- 합참의장은 합동작전능력 및 이와 관련된 합동군사 교육체계 등을 개발·발전시키고,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있어서 각 군참모총장과 원활한 협의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.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육군·해군·공군의 기능 및 합동성에 관하여 조정을 건의할 수 있음
- 각군 참모총장은 각 군 고유의 전문을 유지·발전시키되 합동성의 강화를 위하여 그 기능 및 조직을 정비하고, 중간 지휘체대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축소·조정하여 단위부대의 전투능력과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함

○ (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된 군구조 발전방향)

- 지휘구조 측면 : 한미동맹 기반, 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전작권의 안정적 전환여건 조성
- 부대구조 측면 :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탈피, 정예화된 부대구조로 개편
- 전력구조 측면 :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은 물론, 국가·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첨단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 개편
- 병력구조 측면 : 상비병력 감축 불구, 즉응대기 부대의 완전성 제고, 전투부대 간부보강, 예비전력 내실화를 통해 실제 전투력은 강화

현 상 분 석

■ 정책부서의 목소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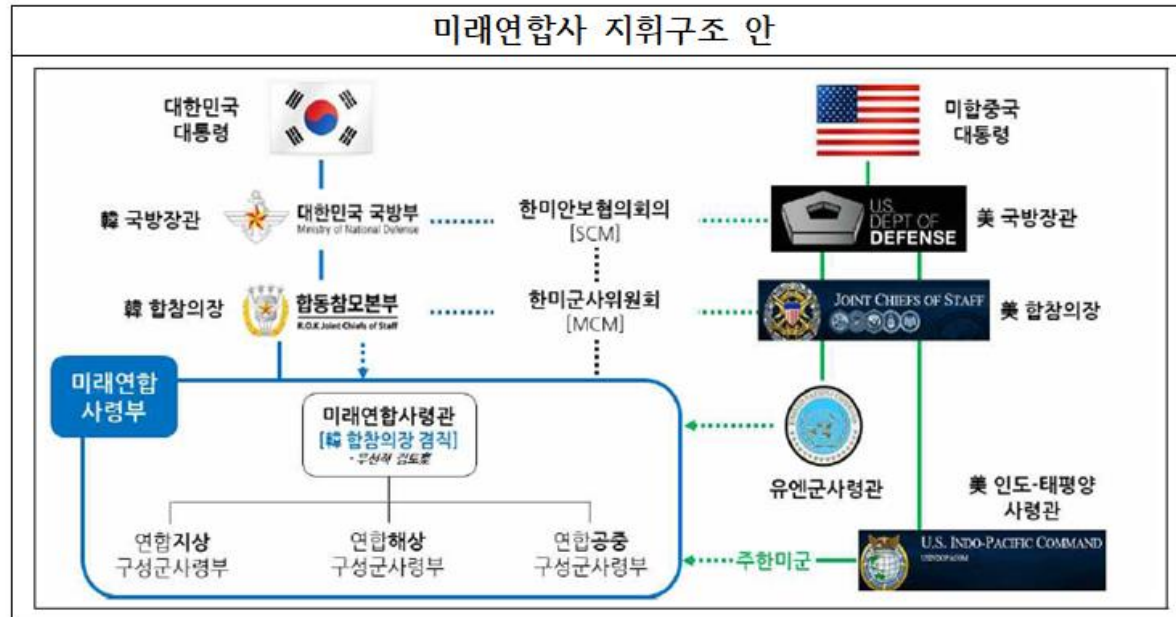
- 전시 작전통제권 연합사령관 행사로 인한 작전지휘체계 모호
 - ☞ 합참 예하 한·미 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 전환되고 연합사령관과 합참의장은 전시 작전수행을 상호 공조
 - ☞ 전시 한국 합참의장은 미국 합참의장과 군사위원회(MCM)을 통해 연합사에 전략지침을 제공
- 육·해·공군 및 해병대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하 동시·통합적 운용 가능토록 합동성 극대화 위한 체계 미흡
 - ☞ 합동성 극대화 위한 작전부대에 대한 지휘통제체계 상호운용성 체계 미흡
 - ☞ 군사력의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합동성 구현을 위한 조직문화 확산 노력 미흡
-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의 다양한 위협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부대구조 개편 노력 부족
 - ☞ 미 육군-공군 파트너십 구축, 다영역임무부대(MDTF) 창설, CyIO 부대 편성 등을 추진 중
-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기술, 나노기술, 항공우주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을 군에 접목시키는 노력 미흡
 - ☞ 우주 및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기술의 발전은 미래 전장영역을 지상·해상·공중공간에서 우주 및 사이버영역으로 확대시킴
-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병역이 가능한 남자인구 감소, 징집제에 대한 인식변화,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대규모 병력 유지는 제한
 - ☞ 병력위주의 양적 부대구조는 정보·기술형의 질적 부대구조로 개선

정책적 제언

■ 군구조 발전방향

[지휘구조]

- 한미동맹 기반, 우리 軍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전작권의 안정적 전환여건 조성
 - 미래연합지휘구조 개편(안) 구체화



- 합동성 극대화를 위한 지휘통제체계 연동·상호운용성 구축

- 현재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한국군의 가장 현실적인 도전 극복 : 언어, 의사소통
 - ‘우리 軍 주도’ 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‘한국군 장교가 미군 장교에게 영어로 지시를 내리고, 영어로 작전을 진행한다’는 뜻. 현재 한국군 내에 미군 장교에게 지시를 내릴 수준의 영어 능통자는 극히 소수. 실무를 진행하는 한미연합사령부 내에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장교가 다수 보직
 -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한미연합사령부에 보직하고, 주요직위자는 미군 장교에게 지시를 내리고 작전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는 장교로 보직
 - ※ 해당 계급에 책임자가 없다면 임무를 위해 하위 계급자라도 해당 직책에 보직 필요

- 현재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한국군의 가장 심각한 도전 극복 : 군사교리 창안, 전쟁계획 작성 능력
 - ‘전작권을 우리가 행사한다’는 시점, 행위 이전의 전제조건은 ‘한국군 고유의 군사교리를 창안하여 정책서, 전략서, 명령·지시, 지침을 성안’해야 하고, 또한 ‘한미연합 자산을 전장에 투사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장교가 작전 뿐만 아니라 인사, 정보, 군사, 동원, 언론 등을 포함한 전쟁계획을 작성한다’임.
 - 현재 한국군은 고유의 군사교리가 없고, 전쟁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.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고려, 실무 절차적 협상에 치중되어 실제로 군사교리 창안, 전쟁계획 작성은 등한시 되고 있음. 이대로 가면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실체없이 껍데기만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큼
 - ※ 장기적 관점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직위에 군사교리(전쟁사) 전문가(장교, 판료, 교수, 연구원 불문)를 배치하고, 전쟁계획 작성 및 전쟁계획 실행에 참가해본 전문가(필요하다면 외국군 장교를 자문역으로 고용하는 것까지 고려)가 전작권 전환 과정에 참가토록 해야함

[부대구조]

-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탈피, 모듈화된 부대구조로 개편
 - 부대의 훈련, 편제, 장비를 신속결정작전 가능한 것으로 혁신
 - * 한반도의 짧은 중심, 대도시에 밀집된 기간시설과 인구를 고려시 구조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부대가 아니면 작전 효과 급감(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응). 따라서 사건 발생 혹은 징후 발견시 00시간 이내 출동, 00시간 이내 전개, 00시간 이내 작전개시 가능한 신속결정작전 부대를 평시부터 육성해야 함
 - ☞ 육해공 막론하고 출동하여 작전할 수 있는 합동편제부대, 오토바이·소형전술차량·차륜형장갑차·회전익항공기 등 수송수단 평시 편제 등
 - ※ 프랑스, 독일 등의 신속행동부대(Rapid Action Forces) 등 참고하여 벤치 마킹

신속결정작전의 의미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속결정작전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분쟁 초기 단계에 소규모 부대로 작전적 대응을 하는 것이 외교적 비용, 국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 → 군의 작전이 직접적으로 국익에 연결 ☞ 군이 통제하는 작전이 아닌 국가의 중앙정보기관 혹은 의사결정기관에서 직접 지하고 통제함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빈 라덴 사살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모습></p>	

[전력구조]

-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은 물론, 국가·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 개편
 - 벤처·스타트업이 개발한 최신 과학기술, IT기업 신제품, AI 관련 기술을 장벽, 중간 검토, 규제 없이 즉각 현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'첨단과학기술 실험적용부대' 운용 고려
 -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 능력 보장 및 핵·WMD 위협대응 등 핵심군사능력 구비를 위한 전력구조 지속 진행
 - * 이를 위해서는 야전 필수보직을 마친 영관급 이상 장교 중 연합 / 핵 및 대량살상무기 분야 전문가를 선별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게 재교육·육성할 필요성이 있음
 - 테러, 재해·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·비군사적 위협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능력 보강을 위한 전력 확보 추진
 - * 민간의 재난구조사·비파괴 검사 기술자, 정부기관의 기후전문가 등 민·관·군 전문가 중심의 교차기능팀 (cross-functional team) 구성 운용
 - * 동맹국, 파트너국 현장에 파견하여 능력을 제공하고 해당국의 첨단 기술,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



[병력구조]

○ 기존과 파격적으로 다른 병력구조 혁신안 적용

* 현재 한국의 인구 변화가 파격적으로 변화(2017년→2025년 20세 남성 35만 명→22만 명 추산)하고 있으므로 파격적인 병력구조 혁신 없이는 국방 차질 불가피

*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력 감소는 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일 뿐임

• 장교 : 예비역 장교에 운용 보직 마련·확대

– 전투 지휘관 이외의 보직은 예비역 장교 과감히 보직

– 미군은 현행 임무 수행중인 사령부에도 예비역 장교를 임명 ex)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은 예비역 준장으로 6개월은 현업에 종사하고, 6개월은 사령관으로 임무수행

• 부사관 : 부사관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시안적인 정책 지양

– 야전부대에서 부사관이 수행하는 단순업무 상당수는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, AI, 키오스크 등으로 대체 가능

– 장교 지원을 하탁의 대책도 우수 부사관 양성, 병력 감소의 문제도 우수 부사관 양성으로 대응하려는 단견적 방안 일소

• 병사 : 독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40만 명을 유지하던 군 병력이 2000년대 들어 20만 명으로 감소. 대체 복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군복무자 : 대체 복무자 : 복무 면제자 비율이 13 : 32 : 55로 저하. 따라서 한국군도 병력을 파격적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입영 대상 자원, 대체 복무 선택의 확대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급급할 수밖에 없음

향 후 추 진 방 향

■ 전작권 전환에 관한 미군 측 전문가 초빙 콜로키엄 개최 (즉각과제)

- 미 대사관, 미8군에 협조하여 현장에 있는 미군의 전문가적 식견 청취
 - － 군 전문가, 현직 군인, 전문연구자 등 초빙하여 토론 실시
- ▷ 걸프전, 이라크·아프가니스탄 작전 현장에서 정책·작전을 담당했던 예비역 미군을 초빙하여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정기 콜로키엄으로 발전

■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 개편 위한 육해공 담당자 초빙 간담회 개최 (즉각과제)

- 군 전력구조 개편을 위한 국가, 정부 차원의 조치 경청 - 국방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의 장 마련

■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 대처 가능한 합동군 운용개념 및 새 연합·합동훈련 개발 (단기과제)

- 특정 군 중심이 아닌 능동적 대처 가능한 합동군 운용개념 개발
- 미래 합동군 운용능력 극대화 위한 전투발전요소 염출
- 연합 및 합동훈련에 합동부대 및 육·해·공군 2개 이상 공동
참가 노력 강구
 - － 환태평양 합동 연습(RIMPAC)에 육군 특전사 요원 참가
 - ▷ 합동성 강화측면 예산지원 시 합동훈련 가능

- 한국·일본간 원전사고를 상정한 연합 훈련 정례화 고려

■ 합동부대에서 다양한 직위 경험 확대 및 이해 기회 부여 (단·중기과제)

- 타군이해와 다양성이 향상되는 직무향상 방안 개발
 - ‘(가칭) 합동 가치 문화 연구팀’을 조직하여 타군에 대한 역사와 변천과정, 직무이해 위탁과정 신설
- 합참 활용분야·직위별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구체화 하고 ‘실무지침서’ 및 ‘업무프로세스’ 프로그램 신설

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육·해·공군의 통합성 극대화 위한 작전수행체계의 상호운용성 및 보직운영 체계 구축

[중·장기과제]

- 국방전비태세 검열단에 민과 군의 추천으로 외부전문가(통신 전문가, 암호 전문가, 수사 전문가, 우주공학 및 해양공학 전문가)를 미래 합동군의 다영역 작전 수행에 대한 입체적·종합적·객관적 검증체계 도입
- 전장기능 분야에서 각 직위별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가 의사 결정의 중앙으로 보직되어 조직이 전문성에 의해 지휘통제되는 구조로 갈 수 있는 선발위원회를 통한 보직운영 필요